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포김하지마)

1 주차

일시

12월 26일 22:00 ~ 22:50 / 게더타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 (2331261)

○

김예진 (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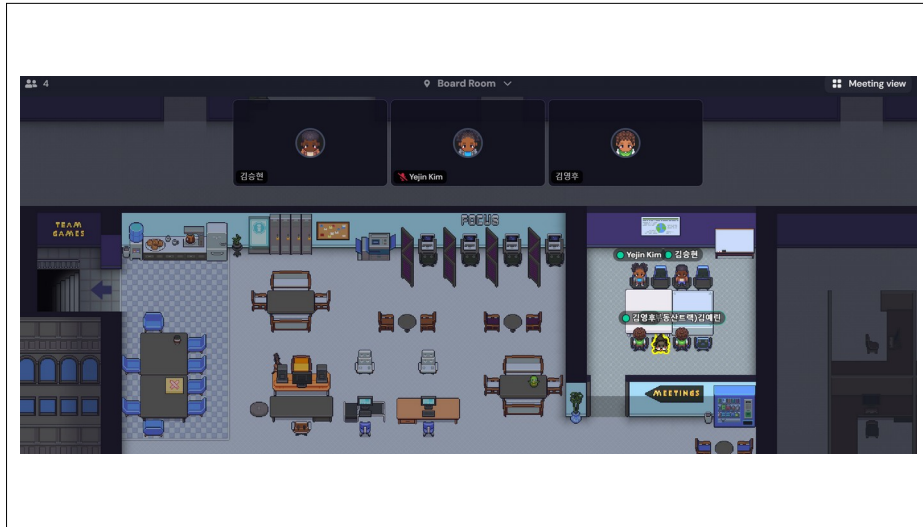
○

진도

도서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진도페이지: p.117 ~ p.297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승현, 김예진, 김영후, 김예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첫 번째 모임에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중 정치와 경제 파트를 읽고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한 후, 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기초 지식(자본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을 소개하며 시장의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걸 알며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치 파트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론적인 구분을 통해 경제와의 관련성을 알았고, 진보와 보수의 현실적 구분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집단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보고,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 알아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김예진이 조사해온 최근 환율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론해보았습니다.

김예진이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가인 1,448 원 금액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기준 금리를 추가로 내릴 전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 안정보다도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김영후는 나라 이슈의 문제가 크고,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김예린은 현재 계엄령 이후 나라가 불안정하여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 때문에 원화를 보유자산에서 제외하고 엔화나 달러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라 보았습니다. 김승현 또한 신용이 떨어지니 한국의 자산을 빼거나 유출하는 등의 문제로 환율이 오른 것이라 보았습니다.

김예진은 이와 관련하여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환율을 우선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김예진은 환율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환율이 안정되는 수출 가격이 예측 가능해져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율이 지금처럼 불안정하다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자본을 끌어올 수 없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예린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1.75%p 가 차이 나는데, 금리를 더욱 낮춘다면 더욱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영후는 기준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내수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 보았고,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통하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이루어 경기가 최종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혼란한 틈 속에서 이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만약 근시안적인 대안이라면 재고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승현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원화 값을 지불해야 하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 하였고, 이는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율 안정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경기부양이 가능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팀원들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달아 있어 뗄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 주차		
일시	12 월 29 일 16:00 ~ 16:45 / 게더타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 (2331261)	○
	김예진 (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진도페이지: p.21 ~ p.113



[좌측부터 김영후, 김예진, 김승현, 김예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중 역사 파트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 파트에서는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모두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고, 생산수단이 없던 평등한 원시 사회에서 토지와 영토를 생산수단으로 여기고 왕이 이를 소유하는 고대 사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장원이 생산수단인 중세 시대로, 중세에서 공장과 자본이 생산수단이 된 근대 사회로 이동하며 자본주의와 공급과잉이 등장하는 등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김영후는 지난 주차에 학습했던 정치와 경제 파트를 이번 역사 파트와 같이 엮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광복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와 흉년과 같은 부정적인 배경을 둔 제주도에서, 3.1 절 기념 제주도대회를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해 6명이 숨지는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민심은 극심하게 악화되며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당시 공산주의 정당이었던 조선 남로당이 나서서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도에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보다 남로당에 선동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고, 경찰력을 통해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는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고, 비상계엄을 통해 대대적인 군 병력을 투입하기 이르렀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고, 6.25 전쟁 발발 후엔 관련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약 3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영후는 이는 민주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학살이었으며, 제주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국적으로 계엄에 대해 민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현은 이 사건 이후 계엄령이 인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 현재의 계엄령이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과연 계엄령이 진정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예린은 공산주의는 단순히 정부가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이용한 것이고,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예진은 역사에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엄령을 다시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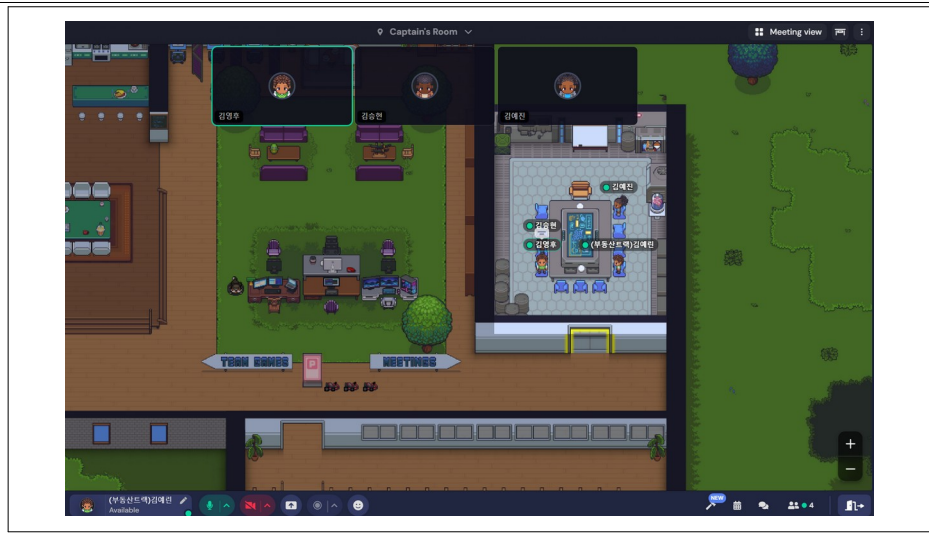
김영후는 공산주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공산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산주의고, 이가 독재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기에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독재 국가라 인식되는 나라들이 어떤 행정 정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길래 공산주의를 택했는지에 대해 따져보아야지, 무조건적으로 독재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예진은 책에 나온 것처럼 공산주의가 독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공산주의를 마냥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공산주의를 독재의 다른 말로 칭하고 있기에 공산주의는 독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꾸기엔 어려운 것 같다 하였습니다. 김예린은 현재 분단국가이자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공격 수단은 매우 효과적이라 사람들에게 '독재 수단'이 아닌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인식시키기에는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를 독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 쪽으로 치우쳐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승현은 공산주의를 독재와 유사하게 바라보는 편이었지만, 이번 토론을 들으며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 학습하며 더욱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발전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영후는 생산수단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두 못 먹더라도 다같이 못 먹는 등 공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는 현재의 사회보다 살 기 좋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예린은 발전하지 않았을 때 누릴 수 있던 것과 발전한 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질 차이가 클 것이라 이야기하며 발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승현 또한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보았지만, 김예진은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놀이터 만 가서 놀아도 재밌던 것처럼 발전되기 전에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며 발전되기 전이 더 좋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역사가 경제 및 정치와 맞닿아 있는 걸 느끼며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속에서 역사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건강한 정치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주차		
일시	1 월 2 일 22:00 ~ 23:00 / 게더타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 (2331261)	○
	김예진 (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진도페이지: p.295 ~ p.337



[좌측부터 김영후, 김승현, 김예진, 김예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세 번째 모임에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중 사회 파트에 대해 정리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자연권에 대해 말하며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한 개인의 구제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는 필연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사회를 보수화시키는 것에 가담하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이론적으로는 진보적인 방향을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의 정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양도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김예린은 이와 관련한 내용 중 현재 우리나라의 계엄령 사태와 계엄령 이후의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엄령 발효 시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디어 통제로, 신문 등 언론 매체는 모두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과거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뿐이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SNS가 크게 발달하여 단순히 언론을 접하는 것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집회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등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예린은 정보의 흐름이 탈중앙화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속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승현은 책에서는 미디어를 마치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처럼 서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며 엄청 보수적이진 않다고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또한 미디어가 짜놓은 매끄러운 영향 아래 놓여있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 또한 미디어가 발달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미디어에 평가를 맡겼던 것 같으며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예진은 현재 미디어가 매우 발달한 상태이고, 이 속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선호하는 미디어만 보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보들만 얻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알고리즘의 발달로 인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위해 중립적인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영후는 최근 미디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계엄령 이후 에브리타임에서 계엄령과 정치에 관해 편향된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만약 자신이 이번 사태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믿었을 만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며 미디어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거 미디어의 탄압이 심했을 당시, 사람들은 따로 정보를 얻을 방법이 달리 없었을 테니 개인의 평가나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했을 것이고, 이는 정부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모두 이번 모임을 통하여 미디어의 보수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주차

일시

1 월 4 일 20:00 ~ 21:00 / 게더타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예린 (2331261)

○

김예진 (2331247)

○

김승현(2331251)

○

김영후(2331092)

○

진도

도서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진도페이지: p.341 ~ p.379

토론 내용



[좌측부터 김예진, 김영후, 김승현, 김예린]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네 번째 모임에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중 윤리 파트에 대해 정리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리 파트에서는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론과, 행위의 결과가 행복과 쾌감이라는 이익을 창출할 때 윤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현실의 사회 정의에 빚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를 통하여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사회에서의 윤리는 어떻게 작용하고 결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승현은 윤리 파트와 관련해 조금 더 현실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와 토론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딥 페이크' 라는 기술은 윤리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딥 페이크란 사람 인물을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는 기술인데, 현재는 연예인은 기본이고 일반인들의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승현은 이 딥 페이크 기술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커지므로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얼른 엄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영후 또한 미국에서 한국은 딥 페이크의 수도이자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한국 내 딥 페이크의 만연함을 꼬집으며 도덕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기술이라 말했고,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의 윤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예진은 딥 페이크 기술은 근본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았으나, 사용에서 문제가 많아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기술의 부정적 사용으로 인해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당하는 사람이 생겨 문제인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운동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이러한 딥 페이크 악용 사례가 줄고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예린은 딥 페이크라는 기술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 기술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윤리적으로 어긋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보았고, 딥 페이크 문제가 이처럼 만연해지기 전부터 사회 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딥페이크의 사용으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나 정치적인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는 공리주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승현은 두 번째 주제로 AI의 창작과 관련한 주제를 토론 주제로 삼았습니다. AI를 사용해 커버 곡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김예린은 AI를 통해 멋대로 학습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비윤리적이지만,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고, 만들지 말라고 저지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들지 말자' 대신 '소비하지 말자'를 중요시 여기며 목소리나 그림의 저작권자에 대한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영후는 AI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특색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진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I의 발전 자체는 오히려 복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최종적으로 사회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여 공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예진 또한 AI를 통해 사회의 행복이 증진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현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이는 일도 많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법적 체제가 완벽해지면 이점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학습으로 인한 수익 창출의 사례보다는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등의 이점에 집중하고 이러한 이로운 방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승현은 AI 사용에 대해 도덕 법칙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승현 또한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이 윤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차 토론을 통해 현실에서 윤리는 기술과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음을 느꼈고, 이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예린 (2331261)	이번 독서토론을 통하여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반영해 팀원들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토론해보며 심화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팀원들과 지적 대화를 하며 그야말로 책이 원하던 '지적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좋았고,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이라도 읽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음 독서클럽에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을 선정하여 또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2	김예진 (2331247)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은 다양한 주제를 간결하게 설명하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나눠도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욱 다양한 도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계기가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3	<p style="text-align: center;">김승현 (2331251)</p>	<p>이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여러 주제로 다층적인 토의, 토론을 조원들과 진행하였는데, 덕분에 주제와 맞는 여러 사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 관련 이슈, 현재의 계엄령 사태, 과거 계엄령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윤리파트에서 ai 관련하여 생긴 이슈에 대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해결책이나 정부의 제정 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p>
4	<p style="text-align: center;">김영후 (2331092)</p>	<p>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현실에 있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사례나 주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온 사례를 통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더 알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도서로 또 토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활동이었습니다.</p>